‘영성’을 둘러싼 시장경제

(민22:1~20)

7.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8.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9.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10.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11.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12.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13.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영성을 둘러싼 시장경제>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영성을 둘러싼 시장경제’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돌아가신 저의 할머니께서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16살에 시집을 오셨으니 한창 젊으실 때였고, 할아버지는 한량이셔서 밖으로만 돌고 계셨답니다. 만주에 사실 때 봄빛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어느 봄날에 사람 목보다 낮은 담장이 있는 집에서 사셨는데 담장 밖으로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무당이 지나가다가 마루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를 보더니 돌아서서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에 흰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은 두 여자가 들어올 텐데 무조건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고 떠나더랍니다.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해 하셨는데 정말 그 다음 날 무당의 말대로 흰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은 두 여인이 들어와서 가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거기가 교회였답니다. 그렇게 나간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남한으로 피난 오실 때를 제외한 평

생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군대 가기까지 기억으로는 아파서 누우시기 전까지는 단 하루도 새벽기도조차 빠지신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이후로는 무당이나 점에 대해서는 입에도 올리신 적이 없으셨는데 무당이 전도를 했다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엊그제는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실제 사시는 곳은 다른 지방인데 강릉시에 집을 하나 소유하고 계시면서 그 집을 세를 주셨는데 세입자가 젊은 부부이고 어린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사업을 하고 아내는 꽃집을 하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사업도 안 되고, 꽃집도 잘 안되고 해서 월세를 제때 내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밀렸던 월세까지 다 내시기에, 세입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일이 잘 됐다며 이제부터는 밀릴 일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오고 가는 대화가운데 그 아내의 친정어머니가 점을 봤다고 합니다. 하도 딸과 사위가 고생을 하면서 죽어라죽어라 하니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세 군데의 점쟁이가 모두 다 당신 딸과 사위가 8월 달이면 사정이 확 풀릴 것이라고 하더랍니다. 교회를 다니던 이 딸은 귓등으로도 듣지를 않았는데, 정말 8월이 되니 남편의 사업이 확 뚫리면서 잘 됩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점쟁이 셋의 말대로 되어버렸으니 혼란스럽습니다. 분명히 영적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세계와 우리 인간세계의 관계가 여간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무당이 전도를 하고 세 점쟁이가 입을 모아서 한 말이 맞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점을 보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딸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런 정도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가끔 필요하면 점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제목을 '영성을 둘러싼 시장경제'라고 붙였는데 '시장경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자유롭게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니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돈을 보고 공급자들이 생겨나고 가격이 형성됩니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형성되는 자유로운 가격 결정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체제가 시장경제입니다.
그런데 영성과 관련되어서 왜 시장경제라는 말을 붙였느냐는 것인데 영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녀와 관계하면 어머니에겐 모성, 아버지에겐 부성이고, 사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성질을 띠고 있으면 사회성이고, 음악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자질과 소질은 음악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성'이란 영적인 세계와 관계하는 우리 마음의 성질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시장경제라는 말과 연결을 시킨 이유는 영적세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고, 공급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시장경제인 이유는 공급하는데 돈을 받기 때문입니

다. 영적세계와의 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고 팔아서 돈을 버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큰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이 쓰신 “3차원의 인생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3차원은 우리가 사는 현실을 말하고, 4차원은 영적세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말에 의하면 목적이 3차원에 있습니다. 3차원을 지배하기 위해서 4차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영성을 둘러싼 시장경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3차원을 지배하기 위해서 4차원의 영적세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의 핵심은 4차원의 영성을 체득하면 3차원인 우리의 현실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상태나 마음의 소원대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오류입니다. 3차원인 이 세상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3차원의 세계에 가두어두려고 하는데, 영적인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의 세계에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3차원에서 이루고 싶은 것의 필요에 따라서 4차원을 종속시키고, 4차원은 3차원에서 느끼는 필요에 따라 공급되는 상품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영으로서 사람들을 3차원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려고 하십니다. 4차원은 3차원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자들이 필요로 해서 4차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차원에서 마음이 해방되어서 도달하게 되는 궁극적 목적지가 4차원입니다. 성령의 영성은 해방의 영성으로 마음을 3차원으로부터의 해방을 돕는 영성이고 선택적 사랑의 관계로 보는 반면에, 마귀의 영성은 노예의 영성으로 3차원과 4차원의 관계를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선택적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3차원보다 하나님이 계신 4차원을 더 사랑함으로 3차원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려고 하는 것이고 해방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고 나면 3차원은 하나님에 뜻에 의해서 지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4차원의 영성을 체득한 다음에 원하는 대로 3차원을 지배해가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바로 영성을 팔고 사는 시장경제의 타락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한 무당이 전도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영적세계와 연관되어서 무당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마귀도 움직이실 수 있고 무당도 움직이실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쟁이들의 말대로 8월달에 사업이 풀리게 되었을 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신13: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꿈

꾸는 자들이나 점쟁이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는데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현혹당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꽃집을 하는 부인에게 하나님께서 8월 달에는 경제적으로 숨통을 트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여부를 아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친정어머니가 찾아가는 무당들의 입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당들의 입에서 나온 대로 경제 문제가 풀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8월 달에 경제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을 만드시냐는 것인데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너무 좋아서 이 돈의 문제가 점쟁이들의 말대로 풀려나갔을 때, 마음이 점쟁이들에게 쏠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돈 좀 풀어주면 네 마음이 나로부터 얼마나 멀어지는가 보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적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3차원인 인간세상의 삶의 현실을 우리 뜻대로 개선시키고 싶어서 기적을 좋아하는데, 영적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적세계를 필요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영성을 둘러싼 시장경제의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발락과 발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수개월 동안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준 땅임으로 침범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지레 적개심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아모리 왕들과는 다르게 이 모압 왕 발락은 영적인 세계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압도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민족마다 민족의 신이 있어서 그 민족의 신이 강할 때에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기존의 아모리 왕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 공물을 드리고서 병사들을 끌고 나왔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수소문을 해서 영적세계의 가장 고품질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를 찾아낸 것인데 그 자가 발람입니다.
발람은 모압으로 부터 640km나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고 있는 복술가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목축업과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사방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세상 소문에 박식한데, 그 미디안 장로들이 복술가 발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하기에 발람이 자기 나라에 와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영성공급자들 중에 최고로 치는 발람이 저주만 해준다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또한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깍듯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복술가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발락이 복채를 잔뜩 들린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내자

발람이 여호와께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라고 하는 것은 복술가는 마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자기는 마귀라는 것을 모르면서) 온 세상에 통용되고 있었던 각 민족의 잡신들과 신접해서 인간을 현혹하면서 복술을 행하고 사술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부각되면서 그 소식이 다 퍼져나갔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고 요단 동편에서 서편을 향하여 진격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들이 퍼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영성을 팔기 위한 또 다른 상품으로 하나 챙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을 불러낼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영성을 팔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얼마나 깍듯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영성공급업자인 발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람의 마음에는 복채가 들어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은 우리 선민들이나 교인들이 앞으로 그렇게 복채를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영성의 시장경제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필요로 합니다. 이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4차원의 세계에 대한 필요를 느끼므로 목사님들 중에서 그 필요에 따라 공급을 하는 공급업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복음 사건(제가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복음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모든 종교는 영성을 공급하는 도매업자들입니다. 불교, 힌두교, 마호메트교 등 모두가 다 인간세상 3차원의 세계를 우리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어서 4차원의 세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보고 공급하는 공급업자들로서 이 세상에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적합한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는 복음의 단체가 있을 뿐이지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영성을 공급하는 영성공급업자이고 도매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고 지금도 성막이나 예루살렘성전에서 양이 번제단에서 죽을 때 내가 죽는 것이라는 번제의 정신이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성의 시장경제 구조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3차원의 인생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발람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공손한지 모릅니다. 발락에게 안 간다고 거부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발락이 사람들을 다시 보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복채만 들려서 보냈는데, 두 번째에는 '복채'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복채의 한계가 터져나가 버립니다.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라고 하는데 복채가 백지수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발람이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발락이 ‘여호와’라는 상품과 연관된 영성을 굉장히 원하고 있음을 알고 값을 한없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발람의 간교를 발락이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모압 여인들(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하게 만듭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사창가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작전을 쓰는데 그것이 발람의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결국은 발락이 제공하는 무한대의 복채를 챙기기 위해서 신접해서 신탁을 듣는 대신에 자기의 간교를 이야기해줍니다. 신탁은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신탁을 제쳐놓고 자기의 간교를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에 큰 환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을 찾아오셔서 대화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차원의 세상 현실을 자기 소원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영성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생길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영성공급업자 도매업자인 발람과 하나님이 대화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게 될 것이며, 발람과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현실에서 선민과 교인들 사이에서 재현될 것임을 알려주시며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을 팔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도 영성을 팔아먹기 시작했고, 바리새인들은 영성으로 존귀한 자리를 얻기 시작한 자들입니다. 다음에 보시겠지만 4차원의 세계로 3차원의 세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 죄악은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더러운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우리는 3차원을 우리 뜻대로 성공하기 위해 4차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여부를 시험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3차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4차원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4차원을 3차원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생활화되지 않는 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의 시장 속으로 뛰어들어서 필요로 하든지 팔아먹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단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잊는 순간 3차원에 대한 소원이 들어오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계는 내 필요가 되고 장사가 되고 매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이 더러움으로부터 온전히 탈피하

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